장성군 분향찰토마토 재배 늘린다

전남도농기원 공모사업 선정
2022년까지 8억 들여 특화단지
시설 개선·재배법 컨설팅 제공

장성군이 분향찰토마토 특화단지를 확대 조성한다.

장성군은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고품질 원예작물 특화단지 육성 공모에서 '장성 찰토마토특화단지'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장성군은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찰토마토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 찰토마토는 남면 분향리 일대 11개 농가에서 5㏊ 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장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하우스 신축, 토양환경 및 노후시설 개선, 재배법 등 맞춤 컨설팅 등을 찰토마토 농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토마토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가운데 하나다. 노화 방지, 골다공증 예방, 항암 작용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성군의 분향찰토마토는 기존 토마토보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가 높고 쫄깃한 식감과 상큼한 풍미를 지녔다. 때문에 일반 토마토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명품 토마토'로 인정받고 있다.

장성군이 '명품 분향찰토마토' 재배를 늘리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8억원을 들여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장성군 제공〉

재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 장성 분향찰토마토는 점토 함량이 높은 토질의 특성을 이용한 건조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2022년까지 6ha 규모로 분향찰토마토 재배 면적을 확대해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치매안심 리빙랩' 전국 최우수사례 선정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경진대회
ICT 활용 치매노인 실시간 위치 확인

나주시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치매노인 실시간 위치정보 시스템인 '치매안심 리빙랩'이 치매안심센터 전국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나주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한 '2020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나주치매안심센터가 전남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치매관리사업 수행능력 향상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와 17개 광역치매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을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나주시는 이번 대회에서 '함께하는 치매안심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를 제출해 치매안심마을 운영사례 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리빙랩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주민과 전문가, 활동가 등이 함께 고민하는 민·산·학·연 간 협력의 장이자 사회적 혁신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ICT를 활용한 치매노인 관리 솔루션 개발을 골자로 시민과 대학생, 치매안심센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민·관·산·학 관계자 20여명과 리빙랩 아이디어 발굴에 몰두했다.

나주시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 활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그 결과물이 '치매안심 리빙랩'이다. 이는 배회감지기(비콘·Beacon)를 활용해 치매노인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실증 중에 있다.

나주시는 제2호 치매안심마을인 산포면 매성리의 치매환자와 독거노인 20명에게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를 제공하고 마을 주출입구 8군데에 기기 인식을 위한 스캐너를 설치했다. 배회감지기를 착용한 노인들이 마을을 벗어나면 실시간 위치정보가 노인돌봄서비스 공동체 포털 및 앱(APP)으로 전송돼 치매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가적 문제인 치매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나주시와 주민, 지역대학, 공공기관 등 민·관·산·학의 역량을 결집시켜 이뤄낸 공동체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역 공동체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시면 죽산리와 산포면 매성리 등 2개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에서는 60세 이상 주민 대상 치매 검진 전수조사를 비롯한 초기·경증·중증환자별 인지 강화 프로그램, 환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치매인식개선활동 등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코로나·한파 녹이는 연말 온정 손길

장흥 70대 할머니 기초연금 모아 500만원 기탁

장흥군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장흥읍 남동마을에서 거주하는 김정자(78) 할머니가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김 할머니는 "5남매로 태어나 어릴적 너무 힘들게 살았다. 결혼 이후에도 생활이 녹록지 않았으나 우연히 알게 된 분의 도움과 배려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게 됐다. 약소하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오래 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조금씩 모아둔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 할머니는 장흥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다.

조국선 장흥읍장은 "김 할머니가 아껴서 모은 돈을 이렇게 기부해 가슴이 뭉클했다"며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 소중한 후원금이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 도곡 새마을부녀회 고추장 담가 경로당 전달

화순군은 최근 도곡면 새마을부녀회가 쌀(20㎏) 27포와 고추장(1㎏) 27통을 경로당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부녀회원 25명은 함께 고추장을 담그고 십시일반 모은 부녀회 기금으로 쌀을 마련했다. 연말마다 지역 어르신을 챙기는 것은 부녀회의 수년째 계속되는 행사다.

이금옥 도곡면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곡면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무척 행복하다"며 "코로나19에 지치셨을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곡면 청년회(회장 박인권)도 쌀 10㎏들이 100포를 기부했으며, 도곡면 월곡리 양기환 씨도 올해 수확한 쌀(20㎏) 20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윤영복 도곡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와 청년회에 감사하다"며 "행정에서도 마을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함평지역 기업·단체 이웃돕기 기부 행렬 줄이어

함평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기업·단체 등에서 기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포한옥마을민박협의회는 지난 10일 함평군인재양성기금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함평군귀농어귀촌협의회(회장 박춘추)도 이날 지역인재육성에 써달라며 함평군인재양성기금에 1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지난 1일 시작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희망2021 나눔 캠페인'에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캠페인 첫날 2300만원에 달하는 기탁금품이 답지한데 이어 2주차에도 총 3100만원 상당 기부금품이 함평군에 전달됐다.

함평중앙교회(담임목사 최창영) 500만원, 유한회사 보리곰(대표 천재영) 1000만원, 동원제재소(대표 최용우) 500만원, 수풀나라(대표 박준호) 3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함평군추출물가공연합회(회장 김선동)와 새농민회 함평군지회(지회장 박남열)에서도 각각 100만원을 기부했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나비원은 600만원 상당의 추어탕 200개(4000인분)를 기탁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無 착색료 감미료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